

주요개념 : 결손가정아동,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아동행동문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 진 숙*·문 영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인간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달해 간다. 출생 후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은 가정이며 특히 아동기의 가정에서의 경험은 아동의 전 발달 과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성자, 이미옥, 1992).

아동에게 가정은 개인의 성격형성의 원동력이 되어 자녀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고도의 산업화와 급속한 사회변동은 현대가족의 가족구조 및 역할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복잡한 사회 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은 중년기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편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가치는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켜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게 하므로 이혼, 유기, 별거 등으로 가족 해체를 촉진시켜 결손가정을 증가시키고 있다(조희선, 1996).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부나 모를 잃게 됨으로써 동일시 대상과 사회적 지지자를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가정은 외부에서 생긴 갈등을 대화와 신뢰를 통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는데 자녀의 고민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다면 이들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강두원(1989)은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의 격리 불안을 겪는 아동은 스트레스를 더 받고 문제발생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지란 할 일을 분담하고 물질적 혹은 인지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정서적 안락감을 제공하여 개인의 지배감(sense of mastery)을 고양시키는 사회적 활동의 결과라고 했다. 아동의 사회적 세계는 친밀한 관계의 여러 관계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달과정을 통해 개인은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부모와 형제를 비롯하여 친구, 교사 등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Belle와 Longfellow(1983)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사회적 지지라고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문영숙 : moon@konyang.ac.kr

정의하면서 아동의 친구선택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인식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기 가치가 높고 고독감을 적게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았으며, 학교 친구의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또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높았다. 반면, 또래지지를 적게 받은 청소년은 또래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들보다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 결석이 잦았다. Turner(1981)는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었을 때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키며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아동행동문제에 관하여서는 아동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인지할수록, 지지행동을 주위사람들이 아동에게 많이 수행할수록, 그리고 아동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적게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명숙, 1994; 정현희, 정순화, 2004).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평가적·감정적(김희화, 김경연, 1998) 태도라고 정의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 건전한 인성발달 및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며(Harter, 1982),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받는 존중, 수용, 관심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하게 되는데, 아동에게는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많은 접촉을 하

게 되는 대상인 어머니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롭게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또래가 중요한 타인이 된다.

결손가정아동은 정상가정아동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여 종종 불안을 느끼고 불행스럽게 느끼며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의 행동도 불안하고 소극적이다(최희웅, 1978). 비행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의 대부분이 본질적으로 손상 받은 자아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결손가정환경은 아동 스스로 지니게 되는 열등감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하여 이로 인해 정서불안이나 문제행동, 비행 같은 부적응을 일으킨다(권영미, 1999).

산업화로 인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가 등은 가정이 전통적으로 담당하여 온 자녀 양육 및 교육의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이와 같은 가정 기능의 약화는 생존의 문제가 자녀의 양육, 교육보다는 우선되는 빈곤층, 저소득층의 경우일수록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으며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참여 아동들에게 사회적 적응과 학업성취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Posner & Vandell, 1994), 아동의 안전과 학업능력의 향상, 사회성과 자아개념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Halpern, 199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아동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행동문제 정도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결손가정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으로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제

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아동과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 2)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아동과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아동과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의 행동문제를 파악한다.
- 4)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아동과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결손가정

결손가정이란 부모가 모두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는 가정을 뜻하는데 형태적 결손가정과 기능적 결손가정이 있다. 형태적 결손가정은 배우자가 질병, 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였거나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훈육과 보호에 차질이 일어나게 된 경우로,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말하며, 결손가족(broken family)이라고도 한다. 한편 기능적 결손가정이란 양친이 다 같이 있더라도 가정의 본질적 기능인 생활의 보호와 보장이 결여되어 있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자녀의 양육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이종윤, 2002).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 결손가정을 결손가정으로 보았다.

2)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은 일정의 시설과 기관에서 아동을 학교외의 시간에 부모가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정책 사업과제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및 생활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3)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대인관계(사회관계망)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서(Cohen & Wills, 1985) 스트레스 상황의 경우 대인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인지적 정보, 정서적 지지, 물질적 제공, 사회관계망의 소속감, 지지행동 등과 같은 자원이 이용될 때 이것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완화시켜 적응을 돕는 개인의 사회적 대처 자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Dubow와 Ullman(1989)의 아동을 위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평가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감정적 태도이다(김경연, 1987).

본 연구에서는 김경연(1987)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Inventory : SEI)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5)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란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나 규

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부적응 행동을 의미한다(강차연, 1999).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로 아동행동문제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 가정아동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행동문제를 알아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한 1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결손가정아동으로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 30명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손가정아동 28명으로 총 5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자료가 불충분한 대상자를 제외한 총 45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기능은 청소년의 생활지도, 방과 후 방임, 비행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 제공을 보호자와 청소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의 기회 제공, 다양한 체험학

습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전한 놀이문화 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중앙과 지방,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문화적 격차를 보완하며 학습능력 향상도, 진취적 기상 함양을 목표로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학습위주의 교육이 아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결손가정아동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선택 과정을 실시하고, 청소년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배우는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진행하며 밝고 건강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부모,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학기 단위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간 방과 후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저녁식사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내용으로는 일반학습(국어, 영어, 수학, 독서, 체육, 과학, 사회, 자습), 전문선택(피아노, 풍물, 서예, 미술, 컴퓨터, 스포츠 댄스, 수화), 인성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종일 야외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와 Ullman(1989)이 만든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를 사용하였다. 국내의 정동화(1995)의 연구에서 번안되어 요인분석과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며, 척도는 가족지지 10문항, 친구지지 9문항, 교사지지 9문항 등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90이었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연(1987)의 자아존중감 척도(SE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성인까지 적용범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부모, 또래, 학교, 개인적 흥미 등 4개 영역에 대한 아동자신의 평가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0,1점 척도로서 25문항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79이었다.

(3) 아동행동문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등(1997)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117개 문항이며 3점 리커트 척도로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92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대전 시내에 소재한 1개의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기간은 교육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군은 2006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손가정아동군은 9월 1일에서 12월 16일까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 교육 마지막 날에 실시되었다. 실시절차는 사회복지시설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담당선생님께 충분히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담당선생님과 함께 질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및 응답방법을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대상자의 제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 -test로 분석하였으며,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아동군에서는 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10명(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5학년이 7명(31.8%), 중학교 2학년 3명(13.6%) 순이었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13명(51.9%), 여자가 9명(40.9%)이었다. 출생순위에서는 둘째가 8명(36.4%), 첫째 7명(31.8%), 셋째 4명(18.2%) 순이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군에서는 중학교 1학년이 11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남자가 14명(60.9%), 여자가 9명(39.1%)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 둘째가 7명(3.8%)으로 가장 많았다.

동질성 검사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2.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 비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아동군과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군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n=22)

		교육군 빈도(%)	비 교육군 빈도(%)	전체 빈도(%)	χ^2	p
학년	초4	2 (9.1)	4 (17.4)	6 (13.3)	1.026	.871
	초5	7 (31.8)	5 (21.7)	12 (26.7)		
	중1	10 (45.5)	11 (47.8)	21 (46.7)		
	중2	3 (13.6)	3 (13.0)	6 (13.3)		
성별	남자	13 (59.1)	14 (60.9)	27 (60.0)	.015	.903
	여자	9 (40.9)	9 (39.1)	8 (40.0)		
출생순위	첫째	7 (31.8)	7 (30.4)	14 (31.1)	.540	.951
	둘째	8 (36.4)	7 (30.4)	15 (33.3)		
	셋째	4 (18.2)	5 (21.7)	9 (20.0)		
	넷째이상	3 (13.6)	4 (17.5)	7 (15.6)		

<표 2>와 같다.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군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3.68으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군의 평균 3.56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 비교

사회적 지지	교육군	비 교육군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가족지지	3.87 (1.07)	3.96 (.71)	-.325	.747
교사지지	3.45 (.79)	3.26 (.66)	.891	.378
친구지지	3.72 (.62)	3.46 (.68)	1.331	.190
총지지	3.68 (.62)	3.56 (.51)	.715	.479

3. 자아존중감 정도 비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군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12.32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군의 평균 7.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표 3〉 자아존중감 정도 비교

	교육군	비 교육군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12.32 (4.98)	7.33 (6.91)	3.251	.002**

** p< .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1).

4. 아동행동문제 비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의 아동행동문제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동행동문제중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군의 비행 행동문제의 평균점수가 0.68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군의 비행 행동문제 평균점수 1.66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그 밖의 다른 행동문제인 신체증상, 우울/불안,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혼합 행동문제, 총 행동문제에서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군의 평균점수가 교육을 받지 않은 군의 평균점수보다 모두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아동행동문제간의 상관관계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표 4> 아동행동문제 비교

행동문제	교육군		비 교육군		
	평균(표준편차)	비 교육군	평균(표준편차)	t	p
위축	2.73 (3.77)	비 교육군	2.62 (2.35)	.117	.908
신체증상	.14 (.35)		.55 (1.43)	-1.506	.142
우울/불안	1.36 (1.22)		2.28 (2.66)	-1.636	.109
비행	0.68 (1.25)		1.66 (1.65)	-2.395	.021*
공격성	6.14 (6.01)		8.69 (7.98)	-1.254	.216
주의집중행동	4.36 (3.53)		4.48 (3.80)	-.114	.910
미성숙	2.09 (2.31)		1.86 (2.00)	.379	.706
내재화 행동문제	4.18 (4.23)		5.45 (4.76)	-.987	.328
외현화 행동문제	6.82 (6.90)		10.34 (9.31)	-1.491	.142
혼합 행동문제	6.00 (4.89)		6.07 (4.99)	-.049	.961
총 행동문제	17.00 (12.08)		21.86 (15.77)	-1.202	.235

*p< .05

<표 5>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아동행동문제 상관관계

	교육군		비 교육군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62*		.14	
내재화 행동문제	-.07	-.59**	.24	.14
외현화 행동문제	-.33	-.27	.06	.09
혼합 행동문제	-.26	-.40	.24	.06
총 행동문제	-.32	-.52	.18	.12

*p< .05, ** p< .01

군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아동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교육을 받은 군에서는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r=.62, p<.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아동행동문제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아존중감은 내재화 행동문제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59, P<.01$).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내재화 행동문제점수(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가 낮게 나타났다. 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서는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아동행동문제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 가정아동과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행동문제를 비교해 봄으로써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향상 및 행동문제 감소를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과 더 나아가 건강한 아동발달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 아동과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는 교육을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오랫동안 결손가정에서 자라왔던 아동들의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로 이루어진 사회적 지지 지각에 단기간의 방과 후

IV. 논 의

교육 프로그램이 영향을 못 미쳤다고 사료되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 증진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증진되리라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동들의 반응이 개인적 요인이나 상황적 요인 때문에 왜곡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다른 연구방법들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김수민, 1988)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교사 등이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자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키며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적응, 생활만족, 정신과 신체적 건강, 그리고 성인으로 발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Reid et al., 1989).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아동행동문제에 관하여서는, 김명숙(1994)의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인지할수록, 지지행동을 주위사람들이 아동에게 많이 수행할수록, 그리고 아동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적게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아동의 건강과 적응에 중재적 혹은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자 한 시도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국내의 경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자기성장 집단 프로그램,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집단경험 활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승호, 1998; 김경숙, 1996).

본 연구에서도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성의 의미는 아동이 집단경험활동의 기회를 통해 그 속에서 자신을 탐색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게 되며, 또래와의 대화를 통해 대인관계의 기술을 학습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다(손화희, 임선빈, 2003). 김영란과 안민주(2005)의 연구에서도 결손가정아동과 정상가정아동의 자아개념 및 성격특성을 비교 연구한 결과, 정상가정아동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행동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심웅철(1994)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비행점수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아동행동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며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 증진을 도울 수 있는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신체적·사회적 기술을 익히며 또래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인간의 건강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을 첨가하여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행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며,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건강한 아동 성장발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

아동의 비행 행동문제가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의 비행 행동문제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들에 의하면,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참여 아동들에게 사회적 적응과 학업 성취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Posner & Vandell, 1994), 아동의 안전과 학업능력의 향상, 사회성과 자아개념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Halpern, 1992). 본 연구결과에서도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아동의 행동문제가 감소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 기능의 약화는 생존의 문제가 자녀의 양육, 교육보다는 우선되는 빈곤층, 저소득층의 경우일수록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대부분의 결손가정아동들은 부모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동안 부적절하고 취약한 주변 환경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기 때문이다. 김숙령과 이선희(2006)의 연구에서도 가정환경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결손가정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위축, 우울감, 외로움 등과 같이 내면적인 문제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같이 외현적 행동문제로 나타난다. 최근에 결손가정 아동들의 약물복용과 탈선, 심지어는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것도 이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족과 이들에 대한 관심 부족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손가정아동의 행동문제를 확인하고, 행동문제감소를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아동의 성장 발달과업에 기초한 인성 프로그램등을 포함한다면 결손가정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업 성취를 원활하게 이루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정 건강행위를 유도하는

데 있어 그릇된 건강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는 위협의 개념을 사용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하여 성 건강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면 결손가정아동의 행동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아동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아동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내재화 행동문제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높아진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적게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강승호와 홍계숙(1998)의 연구에서도 자아증진 프로그램에 의한 집단 상담이 결손가정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을 높이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상가정아동보다 결손가정아동이 자아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아개념 수준을 높이는 데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Cherry(1991)는 신체장애 청소년과 건강한 청소년의 자존감과 가족 및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신체장애 청소년의 경우 자존감에 있어서 친구로부터의 지지와 아버지로부터의 평가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존감에 대한 가족 및 또래지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즉,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hen과 Wills(1985)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아동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

게 만들고, 이러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만들어 문제행동을 예방한다는 견해를 보고하고 있다. 즉,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아동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행동문제의 예방적 변인으로서, 아동의 원만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인지하는 데 안정된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결손가정아동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아동의 적응을 위한 지지체계를 위한 방안으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여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아동의 성장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정서적으로 건강행동에 대한 동기유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한 성 건강 교육 프로그램등을 포함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보다는 단기간 동안 특정행위 변화를 유도하여 건강한 아동의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으며, 더 나아가 결손가정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좀더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 가정아동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행동문제 정도의 차이를 연구하여 결손가정아동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아동성장발달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6년 6월 1일에서 12월 16일까지였으며, 대전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1개 사회복지시설의 결손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결손가정아동 22명, 교육을 받지 않은 결손가정아동 23명의 총 45명의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계수로 분석하였고,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는 교육을 받은 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군의 평균점수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교육을 받은 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군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셋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의 아동문제는 비행 행동문제에서 교육을 받은 군의 평균점수가 교육을 받지 않은 군의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넷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아동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교육을 받은 군에서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정적 상관관계($r = .62, p < .01$),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행동문제가 부적 상관관계($r = -.59, p < .01$)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결손가정아동을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아동행동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위기하에서 가정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하는 결손가정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환경을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행동문제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좀 더 광범위한 표집을 통한 고학년 결손가정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결손가정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 효과의 검증을 위해서 아동과 관련된 다른 변인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가 후속연구로 계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강두원 (1989). 가정환경·학업성취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승호, 홍계숙 (1998). 자아증진프로그램에 의한 집단상담이 정상가정과 결손가정아동의 자아개념변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8, 17-39.
- 강차연 (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 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성자, 이미옥 (1992). 가족구조 변인에 따른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1), 99-111.
- 권영미 (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1996).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격형성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민 (1988). 사회조직망내의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 이선희 (2006). 가정환경 및 어머니 양육태도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성향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3(1), 1-13.
- 김영란, 안민주 (2005). 결손가정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역할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인간이해, 26, 105-124.
- 김희화, 김경연 (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 손화희, 임선빈 (2003).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자아존중감 개발 및 참여효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2), 123-134.
- 심용철 (1994).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 이종윤 (2002). 결손가정 아동이 지각한 보호자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화 (1995).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희, 정순화 (2004).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1(2), 1-17.
- 조희선 (1996). 편부모가정복지의 실제와 향상방안. 가정복지 세미나 자료. 한국가족관계학회.
- 최희용 (1978). 결손가정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lle, D., & Longfellow, C. (1983). Emotional

-
- support and children's well-being: An exploratory study of children's confidant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troit.
- Cherry, D. B. (1991).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physically disabled and able-bodied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ubow, E. F., & Ullman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Halpern, R. (1992). The role of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lives of inner city children: A study of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3), 215-230.
- Harter, S. (1982). Development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In E. M. Hetherington (Ed.), 275-385.
- Posner, J., & Vandell, D. (1994). Low-income children after 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 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Reid, M., Landesman, S., Treder, R., & Jaccard, J. (1989) My family and friends, Six to twelve-old children'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s. Child Development, 60, 896-910.
- Turner, R. J. (1981).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ABSTRACT

Key Words :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Behavioral problems, After-school education programs

Impact of After-School Education Programs on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Han, Jin-Sook* · Moon, Young-Sook*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behavioral problems between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after-school education programs and others from broken families. **Metho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5 children from dispersed families who were housed in a social-welfare agency in the city of Daejeon. Out of them, 22 children were grouped into an after-school educated group, and the others were selected as a uneducated group. SPS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nd statistical data on real number and percentage were obtained. Besides, χ^2 -test and T-test were employed as well. **Result:**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intergroup gap between

the after-school educated group and uneducated group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self-esteem intergroup ga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1$). Third, the delinquent behavior intergroup ga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Fourth, as for correlational relationship among their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behavioral problems, perceived social support has a positive correlation to self-esteem in the educated group($r=0.62$, $p<.01$), and self-esteem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internalizing problems in that group($r=-0.59$, $p<.01$). The correlation of those facto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fter-school education program of broken familie child is very important in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children.

*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